

보도시점

2026. 5. 20.(수) 11:00  
< 5. 21.(목) 조간 >

배포

2026. 5. 20.(수)

#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 길, M.AX를 논하다

- 「제1회 M.AX 컨퍼런스 및 산업성장포럼」 개최 -

※ M.AX : 제조AI 대전환(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20(수) 제조·경제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회 M.AX 컨퍼런스 겸 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조 AX 관련 기업(LG 생산기술원, (주)인터엑스), 학계(KAIST·UNIST·성균관대·명지대) 등이 참석해 제조 AX의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핵심 성장엔진은 제조업이다. 그러나 최근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제조업이 마주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은 제조현장으로도 확산되며 생산성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산업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AI 대전환, M.AX의 추진이 절대적이다.

우리 경쟁국들은 대규모 민간투자, 정부 주도의 강력한 육성정책 등으로 제조 AX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모두의 AX 역량을 한데 모은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다. 11개 분과 1,500여개 기업,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으로 제조 데이터 활용, 제조공정의 AX, AI가 체화된 혁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AI 팩토리, 산업용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실증, 자율주행차 등 AX 제품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등이 대표적 과제이다. 산업부는 올해에만 1.1조원 규모의 AX 예산을 투입하여 M.AX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M.AX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자금공급 등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AI 팩토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불량률 감소, 설비 예지보전에 따른 효율적 정비 등을 통해 제조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 강화, 산업성장펀드 내 M.AX 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에 M.AX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올해 2월에는 산단AX 분과를 신설하여 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X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M.AX 얼라이언스 「베스트 일레븐」을 구축하였다.

- \* ▲반도체 장비 기업(A社) : 웨이퍼 가공장비 오류를 예측·방지해 웨이퍼 손실 30% 감축
- ▲조선 기자재 기업(B社) : AI 비전검사로 기자재 품질검사 소요시간 30% 감축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 AX의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국가별 추진 현황 및 전략, 현장 중심의 제조 AX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M.AX 정책 방향과 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논의되었으며, AI 팩토리 사업의 기술적 보완사항, 제조 AI 기술주권 확보의 중요성, 풀스택 기술 확보 측면에서의 국내 생태계 장점, 제조 인력의 AI 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제조업의 AI 전환, M.AX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 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 핵심 자산인 제조업이 글로벌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의 AI 전환과 AI가 체화된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제고 등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요 제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M.AX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향후 M.AX 컨퍼런스는 데이터, 로봇 등을 주제로 시리즈로 개최될 예정이며, 산업성장포럼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첨단기술 전반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산업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순목 (044-203-3830)
		담당자	사무관	이동윤 (044-203-3835)
		담당자	주무관	안용관 (044-203-3838)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510)
담당자		서기관	한해원 (044-203-4511)	



□ **추진 개요**

- (목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조 AX(M.AX) 추진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책 아이디어 및 아젠다 발굴·논의
- (주제) **제조AX, 인공지능을 일상생활 넘어 산업 현장으로**
- (일시) '26. 5. 20 (수), 14:00~16: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政) 산업성장실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KIAT 원장  
 (學) 이은호 교수<sup>성균관대</sup>, 문수복 교수<sup>KAIST</sup>, 정임두 교수<sup>UNIST</sup>, 박정호 교수<sup>명지대</sup>  
 (産) 송시용 상무<sup>LG 생산기술원</sup>, 박정윤 대표<sup>(주)인터엑스</sup>, 조진환 이사<sup>미래에셋</sup>
- (주요내용) ① 전문가 발표, ② 종합 토론

구분	내용	비고
14:00~14:10 (10')	안내 및 개회 인사	참석자
14:10~14:25 (15')	발제1. 제조 AX의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분석	명지대 박정호 교수
14:25~14:40 (15')	발제2. 국가별 제조 AX 현황 및 성공 전략	성균관대 이은호 교수
14:40~14:55 (15')	발제3. AI적용을 통한 제조혁신 : 현장중심 제조AX 전략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
14:55~16:00 (65')	토론 및 정책제언 논의	참석자